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영차프로젝트의 3차년도 성과와 향후 과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영차프로젝트는 현장으로부터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유보 협력 실행모델을 적용하여 그 과정과 성과를 분석하는 3개년 시범연구이다. 1차년도에는 시범사업의 기반 조성에,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주력하였고, 3차년도에는 향후 시범 확산을 위하여 유보협력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성과와 사례를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범연구의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유보협력의 실행모델 개발, 시범기관 선정 및 현장 시범 착수, 시범기관의 기초선 평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프로그램 협력과 교사 협력 강화, 소집단 협력형 시도, ‘유보 협력 영차매뉴얼’ 개발, 시범지역 공무원 연수 실시, 유보 협력의 성과 평가 지표 수정보완 및 1단계 평가 실시, 유보협력 사례의 공유 및 홍보 강화에 집중하였다. 본 고에서는 3차년도 영차프로젝트 시범기관의 성과를 파악하고 3개년 시범연구의 성공요인과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전국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3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개요 및 추진 과정

1차년도에는 영차 시범사업의 기반 조성,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 2차년도 유보협력의 과정과 성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심도있게 시범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년도 시범연구에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2차년도까지 외부전문가에 의한 1년 단위의 총괄적인 성과평가보다는 개별시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협력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협력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형성적인 내부 평가야말로 협력 성과를 거두는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에서이다. 자체적인 내부평가를 통하여 정성적 측면의 협력 성과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양식을 개발하고

집 중 조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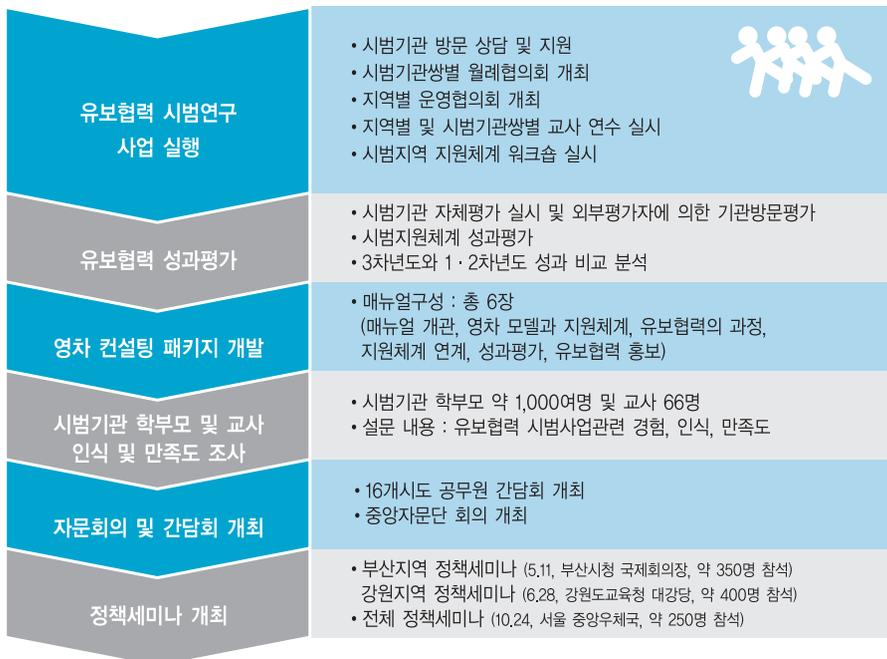
이를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와 외부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보협력의 성과를 풍부하게 수집,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협력 측면에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인 적용을 강조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이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영차 시범기관들의 이와 같은 프로그램 협력은 향후 국가적 수준의 통합커리큘럼의 개발과 실행을 촉진하며, 하나의 선도적인 현장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협력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시범연구는 시범기관의 협력 못지않게 중간 행정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며 연구사업의 성과를 좌우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3차년도에는 협력 실행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지원체계의 협력과 시범기관 지원계획이 실제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넷째, ‘영차컨설팅패키지’ 개발하였다. 현재까지는 연구진이 지역별로 시범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보 협력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상담해 왔으나, 이는 지역별로 정해진 표준화된 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범기관의 협력사인과 애로사항에 따라 연구진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협력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는 컨설팅 패키지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이 향후 지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상담하고 지원체계와 현장을 잇는 가교



[그림 1] 3차년도 영차시범연구 추진 경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유보협력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지속적으로 영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별 영차프로젝트 관련 공지사항 등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며, 범지역 교사간의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 이어 우수사례 집을 발간하고, 3년간 시범연구 요약집을 발간하여 16개 시도군구청과 교육청, 현장에 제공하여 홍보하였다.

2. 3차년도 시범기관의 협력 성과

가. 전반적 협력 성과

1) 2010년과 2011년 협력 성과 비교

시범유치원의 3차년도 협력성과는 2차년도에 비해 협력점수가 21.67점 상승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협력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질 지표 역시, 27.86점(2010년에 69.57점, 2011년에 97.43점) 상승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의 유보협력 성과평가 점수는 2010년에 671.66점에서 2011년에 962.63점으로 290.97점 상승하였다.

한편, 시범어린이집의 3차년도 협력점수는 21.45점 상승(2010년 45.73점, 2011년 67.18점)

〈 표 1 〉 시범기관 2010년과 2011년 협력성과 평가결과 비교지표

지표 구분		시범유치원		시범어린이집	
		2010년 환산점수 평균	2011년 환산점수 평균	2010년 환산점수 평균	2011년 환산점수 평균
운영협력(50)	행정(20)	41.50	62.50	42.92	62.50
	예산(30)	55.66	75.00	58.05	74.43
환경협력(25)	실내(15)	52.66	69.33	48.33	66.13
	실외(10)	41.00	69.00	38.33	67.50
프로그램협력(75)	유아(30)	46.00	68.33	49.16	68.60
	교사(30)	53.66	81.33	51.11	78.90
	부모(15)	33.33	50.00	32.22	52.20
협력지표 소계(150/700)		2,300.48(46.26)	2,436.49(67.93)	320,124(5.73)	470,266(67.18)
기관운영(30)		86.99	99.67	74.71	91.40
기관환경(10)		68.00	98.00	48.33	85.00
기관프로그램(25)		67.20	94.80	56.67	76.32
건강영양안전(30)		73.66	98.67	64.72	91.10
개별서비스(5)		52.00	96.00	43.33	86.60
서비스질 지표 소계(100/500)		2,596.33(69.57)	2,827.63(97.43)	287,765(7.55)	430,422(86.08)
총점(250/1200)		671.66	962.63	607.88	900.68

집 중 조 명

하였다. 또한 서비스 질 지표는 28.53점(2010년 57.55점, 2011년 86.08점) 증가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또한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시범유치원과 시범어린이집 모두 협력성과 평가 총점은 292.80점 상승하여(2010년 607.88점, 2011년 900.68점) 3차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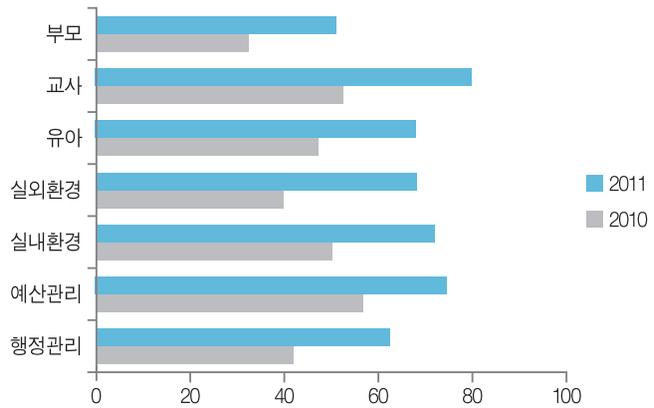
3차년도의 시범기관 평가 결과, 협력 수준은 2차년도에 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각각 67.93점과 67.18점으로 향상되었다.

한편, 서비스 질 지표는 3차년도에 시범유치원과 시범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수준은 각각 97.43점과 86.08점으로 양자간에 차이는 있으나, 2차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30점 가까이 향상되었다.

협력영역별로 나타난 3차년도 전체 시범기관의 협력성과는 교사영역에서 2차년도에 비하여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실외환경영역으로 조사되었다. 교사협력영역은 단일영역으로도 3차년도에서 성과가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절감이 3차년도 자체의 성과로는 두 번째로 협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시범유치원의 경우, 전체 시범기관의 협력 성과와 유사하게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교사협력 영역의 성과의 향상 정도가 가장 높고 실외환경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범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요컨대,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시범기관



[그림 2] 협력지표 하위항목별 점수 비교(2010-2011)

의 협력수준과 서비스 질 수준은 각각 약 60% 향상하였으며, 3차년도(2011)는 2010년도 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수준은 각각 68% 정도 향상되었다. 서비스 질의 경우 역시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시범유치원의 경우 71% 정도 향상되었으며, 어린이집도 68%로 유사한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협력 정도가 높으며, 일대일 협력형이 소집단 협력형보다 더 높은 협력 수준을 나타내었다. 협력영역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사협력'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났고 그 다음이 예산 절감을 위한 협력부분이 높고 2차년도와 동일하게 부모교육과 참여부분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세부 성과

1) 설립유형별 성과

유치원의 경우 협력 지표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운영협력 영역의 예산관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립 유치원은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교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협력지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협력 영역의 예산관리 항목이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 점수가 가장 낮았다. 민간 어린이집은 프로그램협력 영역의 교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환경협력 영역의 실내환경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협력형태별 성과

가) 기관운영 협력

2011년은 유보협력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1, 2차년도에 비해 시범기관 간 친밀도 및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보협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기관운영 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기관은 협력활동을 고려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특정 연령의 연간계획을 동일하게 세움으로써 교육·보육 활동의 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할 수 있었다. 한편, 제도적인 제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운영시간 조정, 교사대체 인력 활용 등의 협력은 여전히 어려웠다.

나) 시설환경협력

3차년도에도 대부분의 협력기관에서 활발히 이

루어졌으며 2차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정례화되고 기관간의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시설환경 활용의 정례화를 통한 협력의 지속성이 강화되었고, 물리적 환경 협력을 토대로 한 단계 진전된 사후협력으로 이어져 유보협력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물리적 환경협력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다) 프로그램 협력

기존 1, 2차년도의 협력활동을 바탕으로 질과 양 모두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1차년도에는 일회성 협력활동을 주로 실시하였고, 그에 반해 2차년도의 프로그램 협력은 지속적인 공동협력활동으로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3차년도의 협력은 연중 프로그램 활동으로 확대 및 심화되었다.

협력활동은 반드시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뤄져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의 기관에서 각원의 운영상황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공통된 주제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협력형태가 한 단계 발전하였다. 또한 3차년도 프로그램 협력의 또 다른 특징은 의형제 맺기활동 등을 토대로 유아들의 상호관심 및 정서적 유대감 증진이라 볼 수 있음.

라) 교사협력

시범기관들은 1,2차년도의 경험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협력영역 중 교사협력이 다른 영역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 3차년도의 교사협력은 대부분의 협력기

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교사교육 실시 및 연수정보 교류, 특히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체 교사연수가 많이 이루어졌다. 3차년도 사업이므로 이미 시범기관간 교사협의회의 정례화 및 유보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어서 협력에 유리하였다.

마) 부모교육 및 참여 협력

3차년도에는 부모교육 및 참여와 관련된 협력을 위한 시범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되어 협력기관 자체 주관의 공동 부모교육과 공동 자원봉사활동이 좀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었음.

바) 예산협력

3차년도에는 모든 시범기관에서 연초 수립한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내용이 다양화되었으며, 절감비용 또한 확대되었다.

3. 유보협력 시범연구의 성공 요인과 저해요인

가. 성공요인

첫째, 시범기관 원장 및 교사의 협력의지와 노력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온종일 보육업무로 함께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양측기관 교사 모두 협력활동 계획과 실행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5세 누리과정이 발표되기 훨씬 이전부터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을 통한 보다 심도있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한 점은 가히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도군청과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가 지원체계로서 기능한 점이다. 기존의 Top-down 접근을 온전히 채택하기보다는 현장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Bottom-up 접근과 동시에 지원의 형태로 중간행정체계가 동참하여 단위기관수준의 협력을 넘어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에 보다 유리하였다.

셋째, 시범기관의 유보협력 활동을 위한 시도군청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다. 2009년도에는 본 연구소가 일정 기준에 설정하여 기관당 연간 250만원-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년도부터는 각 시범지역 시도군청과 교육청에서 시범기관당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시범기관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으며, 시도청과 교육청이 자체사업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 자체가 유보협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넷째,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이다. 시범기관의 이용가능한 시설설비, 차량은 물론,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 나아가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시범기관에게 무료로 보급하였으며, 시범지역과 기관간에 특장점이 있는 시범기관장 및 교사를 상호 교류하여 자체연수를 가능케 하였다.

다섯째, 시범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본 연구소와 지역별 연구진의 리더십이다. 시범 지역 담당연구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및 정기적인 지역운영협의회 개최, 개별 시범기관 상담 및 모니터링, 시범지역별 교사연수, 영차매뉴얼의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과 발전을 주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보 협력에 대한 연구소의 사명의식과 책임이 지속적인 협력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어왔다.

여섯째, 유보협력 성과의 증거를 다양한 채널로 수집하고 공유한 점이다. 유보협력의 성과를 아동 발달 및 학습의 진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조사하기 보다는 협력의 수준과 서비스 질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차년도에 도입한 자체평가는 교사 스스로 목표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고,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한 협력 사례의 적극적인 공유는 유보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 저해요인

첫째, 시범기관 교사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 시간 확보는 1차년도부터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시범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온종일 수업과 유치원 교원들의 종일반 운영등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워크숍 등 협의 회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시간 조정을 모색하였으나, 여전히 시범사업의

속제로 남아 있다.

둘째, 행정기관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계 및 일관성있는 지원체제 부족,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아래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난 3년간 시범지역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변동은 유보협력사업에 대한 정보와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셋째, 시범기관의 유보협력 지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해당시도청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으나, 3개년 시범사업이 완료된 2012년도부터의 예산은 새로이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가변적이어 의도치 않게 시범사업의 중단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넷째, 시범사업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도가 미온적이며, 시범지역 시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심적, 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중간 행정체계가 주도적으로 해당지역의 유보협력을 지원, 유도하고자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유보협력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독자적인 적극성의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 확산 방안

가. 영차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

1) 16개 시도별 시범기관 지정사업 실시를 통한 확산

첫째, 개년 동안 3개의 시범지역(부산광역시, 경기도부천시, 강원도홍천군)에서 총 22개의 시범기관이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3차년도를 기점으로 시범연구를 재정비하여 4차년도인 2012년에는 희망하는 시도에 시범기관을 공모하여 시도별 지정사업 형태로 실시,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시범기관 선정기준 가운데 기관간의 5-10분 거리의 인접성 기준을 변경하여 소위 '벨트형'의 소집단 형태로 선정할 계획이다 (16개 시도 공무원협의회를 통하여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대전, 충남, 전남지역 등에서 관심 표명함.)

각 시도별로 시범기관이 선정되면 단위기관당 유보협력 예산지원을 최소화하고 공동 교사연수, 부모교육특강 등을 기획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각 지역별로 전문가를 연구협의진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역내 시범기관을 컨설팅 하도록 지원한다. 2012년 3월부터 누리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유보 협력을 위한 시범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교과부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시범으로 16쌍의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정 시범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교원에게는 사기진작과 함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시도 및 교육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유보협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시범지역 가운데, 강원도홍천군 전체를 '유보협력 시범특구'로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홍천군에는 현재 41개의 보육시설과 26개의 유치원이 있으므로 희망하는 기관에 한하여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즉, 시범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강원도 지역적 특성을 사린 시설환경 협력(특히, 차량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2) 유보협력 영차 네트워크 구축

유보협력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하여 시도청과 교육청을 주축으로 다단계의 유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현재 영차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 운영협의체는 상당히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 시도청과 교육청 공무원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연합회 지회와 연계하여 확산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시도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공·사립유치원 협력체제로 '유치원 협력네트워크'(Together Network)의 외연을 확장하여 공·사립유치원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린이집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의 풍토를 조성하여 유보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 현재 유치원 협력네트워크는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일 지역교육청내 5~10개 내외의 공·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유치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통학버스 공동 활용, 영양사 공동 활용, 식자재 공동 구매, 행정요원 확보 및 종일제 인력 공동 관리 등으로 운영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2011년 현재 총 71억원을 지원, 전국 713개 네트워크에 총 4,821개 유치원 참

여, 교과부 내부자료, 201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거점기관 담당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유보협력 영차 매뉴얼과 컨설팅 패키지 보급 및 활용

유보협력의 취지와 구체적인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영차 매뉴얼’을 보급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유보협력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망라하여 일정한 기본적인 틀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기관들을 상담해 주는 전문적인 조력자용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를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각 지역별로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활용하여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조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4) 유보협력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일반화

첫째, 영차 홈페이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도청과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기타 지역센터 홈페이지, 공시립유치원연합회와 보육시설연합회 홈페이지에 ‘영차배너’를 각 기관초기 화면에 탑재, 링크 한다. 둘째, 영차 e-소식지 발간 및 배포한다. 매월 또는 격월로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유보협력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기관간의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우수 협력사례를 발굴하고 영차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다. 우수사례집을 유사한 여건에

있는 비시범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시범지역 내에 보급하여 유보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도와 같이 시범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 포상하도록 한다. 넷째, 연차적으로 추진된 협력 시범연구의 전반적 정보를 기록하는 유보협력 영차 연차보고서를 집필, 발간한다. 또는 유보협력 성과를 간단한 요약 책자로 발간하여 주요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다섯째, 유보협력 시범운영기관의 성과보고회를 시도별로 1곳을 지정하여 연회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화 가치를 높인다. 여섯째, 전국 보육시설에 배포되는 ‘보육사업 안내’에 유보협력에 대한 지침과 영차시범 사례가 포함된다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영차프로젝트의 내실화 방안

1) 유보협력 내실화를 위한 특례조항 제정

지난 3년간 유보협력 시범연구를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의 한 가지는 시범기관들의 협력활동이 ‘반드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협력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즉, 유보협력의 고유성을 살린,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을 돕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유보협력 시범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본 시범사업은 현 제도권내에서 실행가능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명 미만의 소규모 초등병설유치원에서 1-2명의 유아를 위하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 종일제를 운영하기 보다는 인접해 있는 어린이집과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협력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병설유치원은 인근 어린이집의 차량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우려가 크며, 동일지역내 비시범기관에서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 역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이다. 이에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유보협력을 위하여 일부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부산시유아교육진흥원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방하였듯이, 전국의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보육정보센터 등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설을 개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시범기관의 협력 체계화

첫째, 전국에서 선정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유보협력 및 성과에 교사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 관련 각종 CD-Rom, 인쇄책자 등을 교사에게 지원한다.

둘째, 5세 누리과정의 정착과 이와 연계한 만 3-4세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을 모색한다. 공통과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사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만 3, 4, 5세 담당 아동의 연령별로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가장 성공적,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교육·보육활동 공유하고 5세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4세, 3세로 점진적으로 시행될 공통과정 현장 적용에 대비한다.

셋째, 16개시도로 시범사업을 확산할 경우, 자체평가 시스템의 구축은 더욱 절실하다. 또한 기존의 단위시범기관별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에 대한 평가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평가양식, 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도록 한다.

3) 지역별 유보협력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시범기관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시범기관 자체의 필요에 따라 협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시범기관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보다 적절한 심층적인 협력 관련 정보와 사례 발굴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협력모델은 시설환경 협력(차량지원, 급식지원,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등), 도시 협력모델은 행사 공동준비 및 실행, 공동교사 연수, 소집단 협력형은 차량 등 물적 자원의 보다 원활한 공유, 운영시간 조정 협력 등을 특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협력 실행 기반 강화

첫째, 영차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변동사항 최소화 및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시도군구청과 교육청의 연간 협력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체제 강화한다. 본 시범연구는 3차년도(2011년)에 종료되므로 지속적으로 유보협력의 풍토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각 시범지역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범기관의 협력 못지않게 중간 행정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며 연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협력 실행계획이 우선적으로 수

립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1) 시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시범기관에 최소한의 예산 지원, 2) 유보협력기관에 연간협력계획에 따른 활동 독려와 관리감독, 3) 교사연수, 4) 자료개발 및 보급. 또한 올해 작성된 간략한 유보협력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협력 실천 여부와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유보 협력이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행정기관 평가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함께 마련되면 효과적일 것이다.